

“가자주민 병 들면 죽는다”...병원 자체가 하루하루 연명

정상운영 병원 전무...겨우 돌아가는 병원도 단전 위험 외상환자 쇠도...식량 얻으려다 총알에 맞는 사례 많아

가자지구의 의료기관들이 운영 중단에 베틀 끝에 가까스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병원 절반이 이미 문을 닫았고, 운영 중인 병원들도 정상운영은 엄감생심이다.

연료와 의료 필수품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병원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가자지구의 위기상황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BBC·미국 NBC방송 등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종합병원이 11일(현지시간) 현재 비축한 발전기용 연료는 3천L로 이 병원이 하루 정상 운영에 필요한 4천500L의 3분의 2수준에 불과하다.

하루 안에 전기가 끊어져 생명을 유지할 장치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잠면을 맞이할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병원은 이미 중환자실이나 신생아병동 등 필수 병동에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 NBC방송에 “재앙과 같은 상황이다. 전기가 24시간 내 갑작스레 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전역에서 병원들이 연료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 앞서 가자시타의 알아흘리 병원에서는 연료 부족 탓에 신생아 4명이 인큐베이터를 나눠 써야 하는 현실을 공개한 바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스라엘군이 약 130일 동안 가자지구 내 연료 반입을 전면 차단하면서 이런 상황이 조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계속되면 중환자실, 신생아 병동 등 필수 병동에서 환자의 사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스라엘군은 앞서 하루 전 로이터통신에 병원·구호단체를 위한 연료 16만 L가 9일부터 가자지구에 반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급은 군의 소관이 아니라 이스라엘군은 덧붙였다.



공습에 숨진 어린이 12일(현지시간) 한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어린이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AP=연합뉴스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NBC뉴스의 관련 질문에 “가자지구의 아기들에게 진정한 위협은 연료 부족이 아니다. 하마스다”라고 주장했다.

언제든 총탄이 날아올 수 있는 전쟁터의 불안감도 병원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의료진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피하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는다.

NBC에 따르면 전쟁 초기인 2023년 12월 가자지구 북부에서 의료진들의 긴급 대피로 방치됐던 알나سر 어린이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신생아 시신이 여러 구 발견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당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의료진이 황급히 대피하다가 미처 신생아 환자를 챙기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외상환자도 병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알나세르 병원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는 이 병원을 ‘거대한 외상병동’으로 표현했다. 350명상 규모인 알나세르 병원은 현재 700명 이상을 치료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4주 동안 구호품 배급 현장에서 부상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WHO 관계자는 전했다. 가족을 위해 식량을 얻으려다가 병안간에 날아온 총알에 맞는 사례가 많다. /연합뉴스

日피폭자 10명 중 5명꼴 “원폭 투하 미국 용서 못해”

교도통신, 80주년 앞두고 설문 조사

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 10명 중 5명꼴로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교도통신은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앞두고 지난 2월 이후 피폭자 약 6천6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해 1천532명의 응답을 받은 결과 이처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45.7%는 원폭을 투하한 미국에 대한 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답했고 24.3%는 “특별한 감정은 없다”고 반응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16.9%였다. 다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68.6%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의해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데 대해서는 ‘벗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기상조’(43.9%), ‘당장 벗어나야 한다’(24.8%), ‘벗어날 필요는 없다’(19.6%)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니혼 히단교(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의 협력을 얻어 진행됐다.

미국은 원자폭탄을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투하했고, 이어 같은 달 9일 나가사키에도 떨어뜨렸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교부한 피폭자 건강수첩을 보유한 피폭자 수는 지난

3월말 현재 9만9천130명으로, 1년 전보다 7천655명 줄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86.13세다.

피폭자 건강수첩 보유자 수는 1980년도(1980년 4월-1981년3월) 37만2천264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13년도에 20만명을 밑돌기 시작했고 이번에 10만명을 처음으로 하회했다. /연합뉴스

미얀마 반군 공격에 수백명 태국으로 탈출

미얀마 남동부의 군사 기지가 미얀마 반군정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으면서 미얀마 민간인과 군인 500명 이상이 태국으로 탈출했다고 AFP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태국군은 성명을 통해 이날 오후 3시경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 카렌 민족연합(KNU) 측이 미얀마군 기지 공격에 나섰다며 “미얀마군은 방어를 위해 지원 포격을 요청하며 저항을 시도했지만, 결국 방어선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태국군은 이 공격으로 미얀마 군인 100명과 민간인 467명이 태국으로 넘어왔으며, 태국 정부는 이들을 무장 해제하고 치료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KNU 측은 AFP에 “국경 근처에서 전투가 있었고, 우리 연합 부대가 일부 전초기지를 점령했다”며 “일부 미얀마 병력은 우리 군에 투항했고, 일부는 태국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법원, 트럼프식 LA 이민자 ‘멋대로 급습’ 일단 제동

“피부색·언어·직장 의심해 단속 말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 당국의 ‘무분별한’ 이민자 단속 관행에 급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이미 이우시-멘사 프리폰 연방판사는 1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위험적 전술’ 활용을 막아 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프리폰 연방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판사에 임명된 인물이다.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이민당국 단속 요원들은 관련 분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대상자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일 것으로 예상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지 않는 한, 불시에 이민 단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대상자의 인종, 민족, 스페인어 사용 여부, 타 언어의 억양이 강한 영어 사용 여부, 직종, 직장의 위치 등은 그런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게 했다.

이 명령에 따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시에 식당, 농장 등 공공장소를 급습하는 방식의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백악관은 예비개일 잭슨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그 어떤 판사도 이민 정책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사법권 남용 행위가 항소심에서 즉각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한편 앞서 전에는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

초 재배농장에서 대규모 이민자 단속 작전의 영향으로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민자 단속 주무 부서인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90km 떨어진 벤투라 카운티의 대마초 재배농장 2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이민자 체포 작전을 진행, 약 200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DHS는 이 과정에서 1명이 단속을 피해 온실 지붕 위로 올랐다가 약 10m 아래로 떨어졌다면 “즉각 응급처를 불러 최대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장노동자연합’(UFW)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농장 노동자 한 명이 이민자 단속 당국에 의해 다친 결과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中 “최근 5년간 컴퓨팅파워 30% 성장...녹색 전환 추세 명확”

중국의 컴퓨팅 파워가 지난 5년간 약 30%의 성장 속도를 보였다고 광명신화통신이 13일 전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과 네이멍구자치구 허린거일 신구(新區) 관리위원회는 전날 네이멍구 후허하오터에서 열린 ‘2025 녹색 컴퓨팅(인공지능)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 컴퓨

팅 발전 연구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 컴퓨팅 파워 총규모의 5년 평균 성장 속도가 30%에 가까이 성장했고, 컴퓨팅 업계의 녹색 저탄소 발전이라는 특징이 명확하다”고 평가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이 컴퓨팅 설비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고성능 칩의 공정 구조 통합 혁신을 추진하면서 저장 기술과 저장·컴퓨팅 통합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했고, 고밀도 정보기술(IT) 장비 및 액체 냉각 시스템을 대규모로 배치해 컴퓨팅 파워 장비의 계산·저장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